광주 시장조합 공동브랜드 '금호월드' 출시

지역 中企, 공동구매·판매 '불황 타개'

전자·가전·혼수·가구용품 350개 업체 참여

인건비·물류비 절약 대형 할인점에 맞서기로

광주지역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엄규수·이상 시장조합)이 올해 안으로 가칭 '금호월드'라는 공동브랜드를 출시하고 공동구매·판매에 나서는 등 불황타개에 나선다.

시장조합은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 공동구매·판매를 통해 인건비·물류비를 절약하는 방안과 공동브랜드 및 CI(Corporate Identity·이미지통합)작업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병익 시장조합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난립하는 대형 할인점에 대한 대응책 마련, 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에 관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이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가동, 금호월드를 호남에서 제일 가는 원스톱 '혼수 매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시장조합은 전자·가전, 악기·인테리어 소품, 컴퓨터, 혼수용품, 가구 등으로 구성된 350개 업소와 1천여명의 회원들을 보유하고 있다.

지속돼온 고유가와 판매감소 등 어려운 경제환경을 돌파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출시와 함께 공동사업을 펼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

2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순천지역의 전남동부수퍼마킷협동조합(이사장 노양기)은 지난해 9월 48억원을 투입, 순천시 조례동에 1천300여평의 대형 물류센터를 설립했다.

노양기 이사장은 "대형 할인점의 시장잠식에 대응하고 영세회원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물류센터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수퍼마킷의 제품 수급과 가격조절을 위해 물류센터의 역할에 큰 기대를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대형 할인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콘크리트협동조합(이사장 박래옥)도 최근 총회를 갖고 원자재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방안 모색 등을 논의하고 공공사업의 공사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엄격한 감시체계를 운용해나가기로 했다.

또 3년 전 광주·전남협동조합 가운데 최초로 공동브랜드 '자이리'를 출시했던 광주·전남목재가공협동조합(조합장 김금순)도 '자이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며, 전남가스협동조합(이사장 고천봉)은 안전검사 대행사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는 47개 협동조합, 4천여개 회원기업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하자보증센터 운영 등을 통한 공동사업 지원 ▲기능활성화 기금 운영 ▲공제사업 활성화 ▲이행보증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지역 기업 30% "올해도 자금사정 악화"

광주 상의 150개 제조업체 조사

제조원가 상승 경영 부담

올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이승기)가 최근 지역 1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자금사정 전망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자금사정에 대해 '보통수준'으로 전망한 기업이 57.4%로 가장 많았다.

'악화'를 예상한 기업은 33.0%(다소 나쁨 27.7%, 매우 나쁨 5.3%)인 반면, '호전'을 예상한 기업은 9.5%(매우 좋음 2.1%, 다소 좋음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제조원가 상승(52.5%)'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매출감소(20.0%)', '자금회전 부진(15.0%)', '금융권 대출애로(7.5%)', '기타(5.0%)' 등 순이었다.

지역기업들의 평균적인 은행대출금리는 7.1%, 제2금융권 대출금리는 9.6%, 회사채 금리는 7.1%, 정책자금 대출금리는 5.1%로 나타났다.

지역기업들은 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과제로 '정책자금 지원확대(44.8%)'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출금리 인하(38.5%)', '신용대출 확대(11.5%)', '신용보증 지원확대(5.2%)'등을 들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농촌 문화복지센터 인기

농촌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전남지역 농협내 43곳의 문화복지센터가 취미교실·장수대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광양농협이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와 함께하는 도자기체험.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새마을금고도 수표 발행

29일부터 서비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오는 29일부터 새마을금고도 수표를 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새마을금고는 자체 수표를 발행할 수 없어 다른 은행을 통해 수표를 조달해왔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수표 발행으로 시중은행과 동등한 대외 공신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불편을 해소하며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5일 탕쟈쉬엔 중국 국무위원(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는 박삼구 회장.

한·중 경제교류 방안 논의

박삼구 금호 회장, 中 국무위원 만나

박삼구 한·중우호협회 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탕쟈쉬엔 중국 국무위원을 만나 조찬을 함께하며 양국간 교류 활성화와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환담했다.

탕쟈쉬엔 위원은 후진타오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 중이다.

이날 조찬에는 박 회장과 탕쟈쉬엔 국무위원 외에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 중국대표단 10여명과 박관용 전 국회의장,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 박진 한나라당 의원, 박찬법 금호아시아나그룹 항공부문 부회장, 이원태 한중우호협회 상근부회장(금호고속 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5년 제4대 한중우호협회 회장에 취임한 이후 후진타오 주석, 원자바오 총리 등 중국측 주요 인사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민간 경제협력과 양국간 우호증진 등을 모색하는 등 민간 외교사절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곡물가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 높아"

美 파이낸셜타임스 보도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식품부문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5일 FT에 따르면 미국 농무부 관료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식품가격이 평균 3~4%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식품가격은 평균 4% 올라 1990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스미스필드 푸드의 래리 포프 사장은 "우리가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비용증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제는 본격적인 '식품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식품회사들은 그동안 막대한 재고와 금융시장에서의 가격헤지를 통해 식품가격 인상을 억제해왔지만, 올해는 이런 요인마저 사라져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FT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주)신풍, 제9회 노사협력대상

금속 열처리 전문업체인 (주)신풍(대표 조우석·광주시 광산구 하남동)이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가 주는 제 9회 노사협력대상을 받는다.

1983년 설립된 (주)신풍은 창립 이후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복지노사화합에 심혈을 기울여 24년째 무분규사업장을 운영해온 성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광주·전남경총은 26일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제 28회 정기총회를 열고 (주)신풍 외에 노사협력 유공근로자들에게 시상했다.

수상자들은 ▲광주시장상=이일형(무진기연)·고광훈(신흥택시) ▲전남도지사상=황인선(남화토건)·김정석(서강기업) ▲광주지방노동청장상=송기대(디케이산업)·박영규(서산)·오홍반(신일가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장상=이재식(금호정비써비스)·국중주(부국산업)·장규환(우성정공)·유봉우(현대주택관리)씨 등이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고가주택 소유=고소득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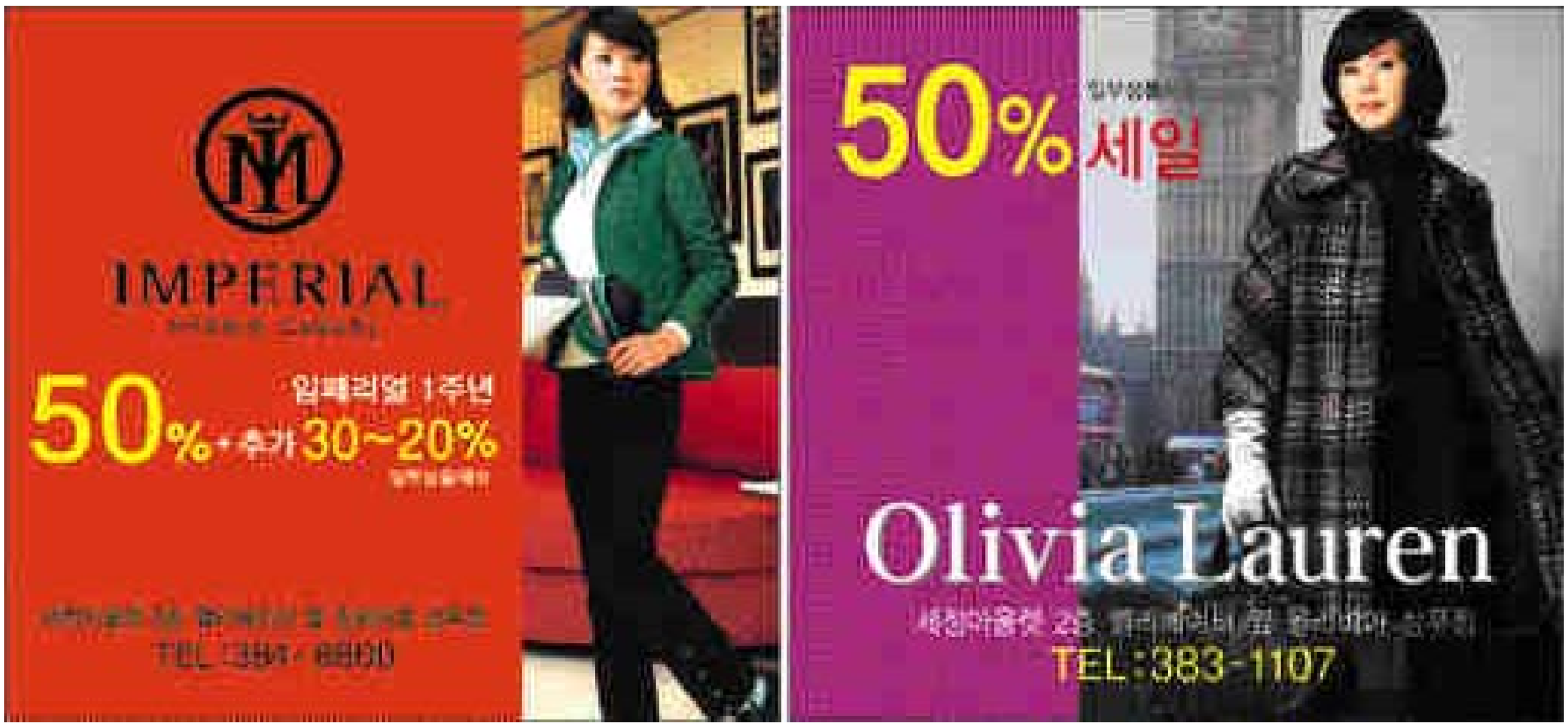
소득 낮아도 주택자산은 높을수도

1주택 양도세 감면 형평성에 문제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자산만을 기준으로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집값은 한 채에 몇백만원짜리부터 몇십억원까지 편차가 크고 따라서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해당 가구의 전체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정책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3년의 도시 가계조사와 2004년의 주거부문 사회통계조사, 2006년 가계자산조사 등을 토대로 7천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과 가구소유 주택자산 가격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분류하고 해당 분위의 평균 보유주택 자산가액을 정리했더니 최저가구 소득분위인 1분위의 자가주택 점유 비율이 2,3,4분위보다 높고 소득 4분위 계층에서는 3분위보다 자가점유 가구비율이 낮으며 평균 주택자산가액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득 6분위에서도 5분위에 비해 평균 주택자산 가액이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연합뉴스